



500나한도 1255 아라한도 그린 오일남씨

“대나한전 건립해 전법 하는게 소원”

공직생활을 마치고 평소 익혀 온 초상화 기법으로 500나한과 1255분의 아라한 등 불교의 성인들을 화폭에 담은 불자가 있어 화제다.

충북 제천에 ‘오백나한 연구소’를 개설하고 매일 ‘오백성중청례문’으로 기도를 하며 성인들을 그리는 오일남씨가 그 주인공. 오씨는 퇴직 후 소일삼아 평소 관심 있던 초상화 그리기에 매달렸다. 그러나 일반인을 그리기 보다는 조선조의 왕이나 단군, 스님 등을 그리는 것이 즐거웠다. 그러다가 우연히 송명 스님(지장종 총무원장)에게 받은 <500나한도>(2001년 이화출판사 간행) 도판집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자신이 진정 그리

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 오씨는 나한기도를 하며 나한도 그리는 일을 수행으로 삼았다.

작업실까지 본격적으로 갖추고 기도와 그림 작업에 몰두한 오씨는 4년 3개월 만에 가로 35cm 세로 90cm 크기의 도판에 500나한을 다 그렸다. 오씨는 “500장의 도판이 집안에 가득 차니까 성취감으로 행복했지만, 다 이루었다는 생각은 다시 더 그리고 싶은 마음으로 발전해 1255분의 아라한까지 그렸”고 설명했다. 1255분의 아라한은 모두 33개의 도판(가로 180cm 세로 110cm)에 그렸다. 33권을 가운데 한 분을 중앙에 배치하고 나한님을 한 도판 당 36~38분씩 배치한

것. 이 작업도 꾸준한 기도와 병행하며 3년이 걸렸다.

오씨는 33조사와 우리나라의 16국사 부처님 10대 제자 등을 그리며 불교의 역사를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여생을 바칠 생각이 다. “그림 그리며 기도하는 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오씨는 믿기 어려운 영험담도 들려주었다.

그러나 진정 오씨가 원하는 것은 일신의 복락이 아니다. 많은 분량의 그림들이 청정한 도량에 모셔지는 것이다. 집안에 모아두는 것보다는 사격을 갖춘 전각에 모셔 기도와 공부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싶다는 것. 그래서 오씨는 제천시 수산면의 청풍호반 인

근에 1만2000㎡의 부지를 확보해 두었다. 이제 인연 있는 스님을 만나 ‘대나한전’ 불사를 할 수 있길 바라는 것이다.

학창 시절엔 규율부장을 맡았고 해병대에 입대해 헌병 생활을 했으며 경찰관으로 35년을 근무한 오씨는 “늘 오만했던 마음을 나한님을 비롯한 여러 성인들을 그리면서 다스리게 됐다”며 “나한도를 그리며 진정한 불자로 거듭났다는 즐거움은 개인의 것이지만 대나한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하고 수행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재천/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민 기자 jwpark@buddhapia.com

긍정의 禪을 디자인 한다

‘스마일로그’展 5월 1일부터

선과 디자인의 접점을 모색하고, 다양한 웃음의 형태로 대화하는 작가.

이기섭의 ‘스마일 로그(smiloge)’전이 5월 1일부터 29일까지 더갤러리에서 열린다. 작가는 선과 디자인의 공통점이 ‘가능한 최소한의 본질을 찾는 점’이라고 말한다. 불필요한 것을 배제하고 본질을 추구하고자 한다. 웃음을 통한 dialogue 즉 smiloge이다. 간결함과 정제, 비움 그리고 실용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작가는 “불교의 영화미소적 메시지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이번 전시 주제를 설명한다. 선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 삶의 화두로 삼을만한 10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그 가운데 작품 ‘흐름을 따라’는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까지 흐름을 따르라”고 이야기한다. 그의 작품에 담긴 몇 가지 스마일로그 코드를 따라가 보자.

-웃음(Smile) :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밝게 웃는다. 웃음의 마음이 짐은 건강할 삶의 에너지를 표현한다. 경쾌한 웃음은 경쾌한 생각으로 이어져 그것은 다시 경쾌한 행동으로 표현된다. 궁극적으로 밝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도이다.

-로그(logue) : 사전적 의미를 지니지 못한 웃음의 논리 구조이다. 대상과의 관계가 블록의 퍼즐처럼 형성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객체간



이기섭작 ‘흐름을 따르라’.

의 관계성은 절제되어 있음과 동시에 서로를 반영하며 대화한다.

-원&정사각형(Block) : 공간이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다양하게 조합된다. 정사각의 블록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확대와 축소의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색채의 정반합(Color) : 회색 톤 배경 위에 무채색과 유채색이 조화롭게 구성되어있다. 색 수는 최대한 자제하고, 채도를 낮추면서 무채색으로 보조를 맞춘다.

이 외에도 긍정적인 생각은 노력으로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그림’과, 색상 그림책을 구성하며 탄생한 ‘별공 레모’, 마음에 따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북극성 이야기’ 등 작가가 꿈꾸는 다양한 바쁜 마음들이 만나볼 수 있다. (02)3142-5558 기연숙 기자

부처님오신날 기획 초대

‘다르마:부처의 가르침’展

짧은 불교미술 작가 3인이 표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조계종 문화부는 5월 3일부터 16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전시실에서 ‘다르마-부처의 가르침’ 기획전시회를 연다. 불교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에게 작품 전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창작 의욕 고취는 물론 불교문화 활동의 저변을 선도한다는 목적이 있다.

불교팝아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작가 김영수는 현실의 화두로 본인의 수행경험을 고스란히 작품에 옮겨놓는다. 아카데미한 불교미술을 지향하는 작가 서철교는 정통 조각을 불교 도상에 접목시킨



김영수작 ‘윤회금지’.

다. 유식사상과 한국화의 접목을 주제로 삼는 작가 박준수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 인간정신의 흐름을 좇아 작품에 반영한다. (02)2111-1772 기연숙 기자

극적상황으로 연출된 붓다의 삶

‘붓다’展 5월 12일까지

붓다의 생애를 화두로 붓을 든지 10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종로 구 궁정동에 위치한 가진화랑에서 이해기 화가의 ‘붓다(Buddha)’展이 열린다. 과거로부터 꾸준히 해왔던 이야기들 중 14작품을 선별하여 화풍의 궤적을 짚어보는 전시회다.

화가는 감지(緘紙)위에 금선묘(金線描)로 대상에 대한 사실 묘사를 넘어 그 내면에 담긴 정신까지 드러내는 그림을 그린다. 무대 위의 클라

이막스처럼 극적인 상황으로 연출된 붓다의 삶이 화폭마다 진중하다.

그의 그림은 일종의 수행이다. 분필에 더욱 가깝고자 하는 화가의 의도는 붓다의 고행과 많이 닮았다. 화가는 “생이 마감하는 날까지 붓이라는 한 인간의 장엄한 일생을 조명하겠노라”고 다짐한다.

불교미술 대중화가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남긴다.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과, 장인에 의한 도제(徒弟) 시스템이 지닌 한계를 극복



작품앞에 선 화가 이해기씨.

하는 것이 불교 미술인들의 과제’란 것. ‘한 가정 한 불화 절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던 화가는 붓다의 일

생을 그리며 스스로에게 탁마(琢磨)의 재질질을 아끼지 않는다. (02)738-3583 기연숙 기자

‘생활 속의 단청’展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은 단청문양을 생활 소품에 응용한 ‘생활 속의 단청’展을 5월 5일부터 12일까지 신라시대실에서 개최한다.

단청작가 미용 김미혜의 작품으로 꾸며지는 이번 전시에서는, 단청문양을 소재로 보석함, 티셔츠, 액자, 손거울, 명함집, 소품꽂이 등 약 50여점을 선보인다. 중요무형문화재 48호 단청장 하 만봉 스님의 제자인 작가는 단청과 불화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공휴일에는 작가와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 따로 준비된다. (02)411-4763 기연숙 기자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카필라 신발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카필라’ 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 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람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

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대단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뉴빅’ 사용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고, 스님께서는 승복색상에 맞게 품격 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빅을 사용해 세련된 양어종교인들도 신장하고 있다. 또한 ‘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라꽃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 것이 독특하다. 성불화‘카필라’는 남녀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사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장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농형935-12-355423 박정미 문의: 080-775-7575

봉축 불기2552년 부처님오신날

純金법륜(팔정도) 부처님 벽시계

개운사 환성스님의 정안으로 탄생한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순금 벽시계 3종세트 사업성과 자녀의 행복을 기원하는 순금법륜 달마시계, 액을 물리치는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깊은 뜻을 새긴 순금 법륜 다리니경 시계, 지혜를 얻는 반야심경 법륜시계, 소원성취와 마음의 평안을 함께해주는 관세음보살의 높은 뜻을 느낄 수 있는 순금 연화 관음시계, 부처님의 높은 뜻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1 순금 관음도 연화시계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을 가진 관세음 보살께서 빈곳은 채워주고 아픈 곳은 낫게 한다는 고려불화입니다. 독한 기운은 사라져 흠여진다는 의미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관음도 법륜시계를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성공, 승진, 건강, 부부화합 등

2 순금 반야심경 법륜시계
부처님의 말씀을 함축하여 모든 불자들이 염송하고 독송하여 지혜를 얻고 부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경입니다. 소원을 이루고 지혜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장수, 건강, 후손의 발전 등

3 순금 대다라니 법륜시계
액운을 물리쳐 준다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깊은 뜻을 새긴 법륜시계로 행복과 안정을 바란다는 의미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가고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형상입니다. 진취적기상, 가정의 행복, 장사나 사업하는 분 등

순금법륜시계는 가정의 행복, 자녀의 건강, 장수, 부부의 화합을 의미

순금 법륜시계는 고급스런 디자인으로 인생의 바른길을 어둠속의 불빛처럼 밝혀주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언제 어디서든 부처님의 깊은 뜻으로 모든 가정이 만사형통 할 수 있도록 하는 열망을 담았습니다. 시계의 숫자판에는 12시 2시 6시 8시 10시 방향으로 액운을 물리치는 경면주사와 함께 음미나 반메를 새겨 우주의 지혜와 자비를 기원했으며 1시 3시 5시 7시 9시 11시에 8경도의 의미를 24K순금으로 디자인되고 고급스런 이미지를 더하고 있다. 법륜시계는 사업성과 자녀의 건강과 시험의 합격, 승진등을 기원드리며 안방이나 학생들의 공부방에 걸어두면 길하다고 한다. 법륜시계는 액

운을 물리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깊은 뜻을 둥근 원형으로 새겨 가정,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 보살님이 천의 눈으로 살피시고 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니 빈곳은 채워지고 아픈곳은 치유된다는 의미로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어려운 시절에 마음에 위안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제품 1개의 가격은 69,000원으로 전국 어디든 지 빠르고 안전한 배송이 가능합니다.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갑용 만사형통 순금 달마카드와 순금 복돼지카드를 함께 드립니다. 농형 935-12-355423 박정미 (택배비 2500원 소비자 부담) 구입문의 : 080-775-7575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삼옷! 「천하무적」 옷가네 토종삼옷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옷은 한 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옷이 좋은줄은 알지만 옷탈 걱정에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잠옷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신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교향은 지금 온 인사는 참을 최초 개발
- KBS 교향의 아침-침옷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성고 정오의 좋은아침-잠옷 개발은 참을 최초
- 2003.11 한국경제-잠옷 신상품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온 인사는 참을
- 2003.10 스포츠투데이-참을 부제품 격판,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부작용 없는 옷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보다도 물어보세요-잠옷의 보석 인사는 참을 건강법 현안
- ▶2006.8.20 KBS 성성일요-계절의 보석 옷 합한
- ▶2006.10.31 KBS 무한지대-참을 현안

■ 구입편 꼭 확인을...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식용 재료보다 신의 생이 뛰어난 많은 고대분류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옷가네 참을농림
무로전화 : 080-838-3366

• 내용량 : 1박스(60ml ×60포) 2개월분 • 1병(1.5L)